

도통진경(道通眞境)에 이르는 두 가지 길

- 대순진리회의 윤리적 수도와 신앙적 수도를 중심으로 -

최정락*

■ 국문요약

대순진리회의 종지 중 하나인 도통진경(道通眞境)은 도인의 이상인 동시에 상생의 도가 실현되는 후천선경을 뜻한다. 도통진경은 대순진리회가 목적하는 바의 궁극적 이상향을 가리키는 말로써 도인 각자에게는 도를 통한 참다운 경지인 ‘도통군자(道通君子)’로 이해되고 종단의 목적으로는 이 우주가 상서가 무르녹는 ‘도통진경(道通眞境)’으로 표현된다. 『진경』에 따르면 강증산은 진멸지경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구하여서 영원한 복록이 있는 후천선경으로 갈 수 있도록 천지공사를 시행하고 이에 맞추어 수도함으로써 도통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본 글에서는 대순진리회의 도통진경에 이르는 길이 도인의 윤리적 수도와 신앙적 수도에 있고, 이 두 가지 길은 도통진경을 향한 유용한 통로로 병존하며 서로를 보완하게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두 가지 길은 사회 일반의 보편성에 기반한 인간의 도리와 교유의 특수성을 담고 있는 종단의 진법을 나타낸다. 윤리적 수도 방법은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면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도리를 다하는 길이고, 신앙적 수도 방법은 강증산 상제의 대순한 유지(遺志)와 조정산 도주가 정립한 유법(遺法), 박우당 도전이 가르친 유훈(遺訓)으로 전해지는 진법(眞法)을 수호

* 대순진리회 교무부 연구위원, E-mail: naturedao@hamail.net

하며 실천하는 길이다.

논자는 도통진경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이 병존하는 까닭이 일상의 삶 속에서 대순진리를 생활화하는 데 그 근간이 있음을 밝힌다. ‘대순진리의 생활화’는 도인 개인적 측면에서는 대순진리를 깨달아 ‘내가 곧 도요, 도가 곧 나[道即我我即道]’의 경지로 이해될 수 있고, 종단 전체적 측면에서는 종단이 사회와 함께 호흡하여 그 진리가 세계로 펼쳐나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대순진리의 생활화는 윤리적 수도와 신앙적 수도의 두 가지 길을 ‘하나의 길’로 통합하게 한다. 이 하나의 길은 종단이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와의 소통을 통하여 이상적 인간과 세계의 구현이라는 목적에 이르게 한다.

주제어: 도통진경, 도통, 윤리적 수도, 신앙적 수도, 진법, 도리, 생활화

- I. 머리말
- II. 도통과 도통진경
- III. 윤리적 수도와 신앙적 수도
- IV. 두 가지 길의 대순진리회적 의미
- V. 맺음말

I. 머리말

종단 대순진리회는 강증산(姜甌山, 1871~1909) 상제(上帝)를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을 종지(宗旨)로 삼고 있다. 종지는 증산이 삼계(三界)를 대순하며 행한 천지공사(天地公事, 1901~1909)의 핵심이 되는 진리를 조정산(趙鼎山, 1895~1958) 도주(道主)가 밝혀 놓은 것이다. 그래서 종지는 종단의 중심 교리가 된다. 음양합덕(陰陽合德)은 상대적 관계에 있는 음(陰)과 양(陽)의 덕(德)을 합하여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고, 신인조화(神人調化)는 신(神)과 인간이 음양의 관계로서 조화(調和)하고 상합(相合)하여 인간개조를 이루고 만사를 이루어낸다는 의미이다. 해원상생(解冤相生)은 척(慝)을 짓지 않고 남을 잘 되게 한다는 뜻이고, 도통진경(道通眞境)은 도(道)에 통한 인간의 참다운 경지인 동시에 우주 전체가 새로워지는 후천선경(後天仙境)을 의미한다. 증산은 세무충(世無忠)·세무효(世無孝)·세무열(世無烈)을 천하의 대병(大病)이라 하고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의 진리에 의한 종교적 법리가 대병의 약이라고 하였다.¹⁾

본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종지 중 도통진경이다. 대순진리회 수도의 목적은 도통군자가 되어 상생의 세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는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이 이루어진 세계를 뜻한다. 이러한 도통진경은 대순진리회가 목적하는 바의 궁극적 이상향을 가리키는 말로써 도인 각자에게는 도를 통한 참다운 경지인 ‘도통군자(道通君子)’로 이해되고 종단의 목적으로는 이 우주가 상서가 무르녹는 ‘도통진경(道通眞境)’으로 표현된다. 대순진리회의 핵심 교의는 진멸지경(盡滅地境)에 처한 선천의 현실을 극복하고 상서(祥瑞)가 무르녹는 후천선경(後天仙境)을 건설하는 데 모든 진리체계가 집약되는 것이다.

정산은 증산이 후천선경을 열기 위해 펼친 천지공사를 진법(眞法)으로 구체화하였다. 즉 정산은 도통진경을 실현할 수 있는 수도법을 정하여서 증산의 법방(法方)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유명(遺命)으로 종통(宗統)을 계승한 박우당(朴牛堂, 1917~1996) 도전(都典)은 1972년 3월부터 대순진리의 포덕·교화·수도를 기본사업으로, 구호자선사업·사회복지사업·교육사업을 3대 중요사업으로 정하여 운영하였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종지와 『도헌(道憲)』을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이수한 자를 도인이라고 하고, 도인은 제 규정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수도의 법방에 맞는 신앙적 수도 방법을 실천하게 된다.²⁾

그런데 대순진리회에서는 종단의 특수성에 기반한 신앙적 수도만을 제시하지 않는다. 종단에서는 도통진경을 이루기 위한 신앙적 수도 이외에도 또 하나의 수도 방법이 있다. 그것은 사회 일반의 보편성에 기반을 둔 윤리적 수도이다.³⁾ 윤리 도덕은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면서

1) 『포덕교화기본원리』, p.9 참조.

2) 『도헌』, ‘제2장 도인 권리 의무’ 제7조~11조 참조.

3) 본 글에서 제시한 ‘윤리적 수도’란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수도 방법을 뜻하고 ‘신앙적 수도’는 대순진리회의 진법에 따른 수도 방법을 의미한다. 윤리적 수도와 신앙적

마땅히 행하여야 할 도리이다. 『대순지침』에 “도는 우주 만상의 시원(始源)이며 생성(生成) 변화의 법칙이고, 덕은 곧 인성(人性)의 신맥(新脈)이며, 신맥은 정신의 원동력이므로 이 원동력은 윤리 도덕만이 새로운 맥이 될 것이다.”⁴⁾라고 하였다. 수도의 강령은 본래의 참다운 인간 정신을 갖추기 위해 윤리 도덕을 실천하는 것이다. 결국 종단의 수도는 신앙적 수도와 아울러 인륜(人倫)을 바로 행하고, 도덕(道德)을 밝혀 나가는 데 있다.

도통진경에 이르는 길은 이 두 가지 방식이 병존(並存)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당은 신앙적 수도와 윤리적 수도를 강조하며 여러 훈시(訓示)를 하였다. 이에 대한 중요 훈시를 보면, 하나는 “포덕을 통해 나 자신이 연성 되고 연질(煉質)이 되어야 운수를 받게 되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⁵⁾이고, 다른 하나는 “수도는 인륜(人倫)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 나가는 일인데 이것을 어기면 도통을 받을 수 있겠는가.”⁶⁾라는 것이다. 전자가 신앙적 수도 방법이라면 후자는 윤리적 수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대순진리회에 입도하면 도통에 이르는 신앙적 수도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게 되는데, 이와 더불어 윤리적 수도도 강조된다.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면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도리의 실천이 도통을 향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수도 방법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도통진

수도는 매우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므로 본 글에서는 이러한 뜻으로 그 의미를 한정한다. 이를 더 자세히 설명하면, 윤리적 수도는 사람으로서 꼭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리이다. 대순진리회만의 고유개념이 아니라 많은 동서양 사상이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이다. 또한 신앙적 수도는 대순진리회 도인이 알 수 있는 도통을 이루기 위한 수도 방법이다. 이는 증산으로부터 종통을 계승한 정산이 수도 공부의 법방으로 갖추어놓은 것을 정산으로부터 종통을 계승한 우당이 도통에 이를 수 있는 실천 수행의 법방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물론 도리를 다하는 수도에도 진법에 맞는 측면이 있고 진법에 맞는 수도에서 윤리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본 글에서는 논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윤리적 수도 방법과 신앙적 수도 방법을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4) 『대순지침』, p.44.
 5) 「도전님 훈시」, 『대순회보』 45호.
 6) 『대순지침』, p.37.

경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는 두 개의 유용한 통로로 병존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 방법은 도인에게 지침(指針)이 되어 수도의 목적인 도통의 완성을 이루고 종단의 목적인 지상 천국을 건설하는 길이 된다.

논자는 도통진경에 이르는 방법이 이 두 가지 길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도통진경을 향한 길이 신앙적 수도 방법만이 아니라 윤리적 수도 방법과 어떻게 병행되는지, 또한 종단에서 왜 윤리적 수도 방법을 혼재시킬 수 있었는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도통진경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의 연구 성과들이 매우 유용한 성과를 거두었다.⁷⁾ 그렇지만 도통진경을 이루는 방법이 이 두 가지 수도 방법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도통진경을 이루는 수도 방법을 밝히기 위해서 먼저 도통진경의 의미를 도통과 도통진경으로 검토하고, 도통진경에 이르는 두 가지 길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고찰은 도통진경의 수도 방법에 대한 일련의 제언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II. 도통과 도통진경

대순진리회 도인의 궁극적 목적은 도통(道通)이다. 도인에게 도통이란 대순진리에 통하여 도통군자(道通君子)가 되는 것이다. 증산은 우

7) 도통진경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가 연구 성과를 내놓았지만, 대체로 동양철학에서 나타난 수양의 목적과 관련하여 도통진경의 의미를 분석한 것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가 있다. 『대순사상논총』 4집(1998)에 수록된 16편의 논문과 『대순진리학술논총』 5집(2009)에 수록된 10편의 논문이 있다. 또한 종교학회와 『대순회보』에 연구된 다수의 글이 있다.

리나라가 상등국이 되고 금강산 1만 2천 봉에 응기하여 도통군자가 나온다고 언명하였다.⁸⁾ 이러한 도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도통은 인간이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주어지게 된다. 증산은 앞으로 누구에게나 닦은 바에 따라 그 마음을 밝혀준다고 하며 “상재는 七일이요, 중재는 十四일이요, 하재는 二十一이면 각기 성도하리니 상등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⁹⁾라고 하였다. 또한 상재는 도를 창성하게 하고[上有道昌] 중재는 크게 어질고[中有泰仁] 하재는 크게 깨닫는 자[下有大覺]라고 하였다.¹⁰⁾ 증산은 해원시대에는 누구나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도통은 도통과 관련된 신명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받을 수 있게 된다. 증산은 도통할 때는 유(儒)·불(佛)·선(仙)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心身)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자신이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¹¹⁾ 그리고 중도 박공우에게 “각 성(姓)의 선령신이 한 명씩 천상 공정에 참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이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을 베풀면 모든 선령신들이 모여 편벽됨을 힐난하리라.”¹²⁾라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에 주목해 볼 때 도통은 상제의 주재로 도통신, 선령신 등과 같이 대신명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인이 각자 닦은 바의 수도 여하에 따라 도통과 관련된 신명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다음의 도장 벽화는 도통을 향한 수도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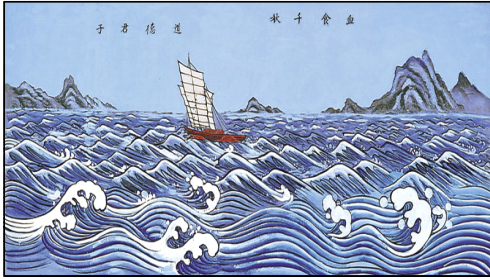
8) 『진경』, 권지 1장 11절, 예시 14절·45절 참조.

9) 같은 책, 교운 1장 34절.

10) 같은 책, 예시 45절 참조.

11) 같은 책, 교운 1장 41절 참조.

12) 같은 책, 교운 1장 33절.



<그림 1> 혈식천추 도덕군자

이 벽화(<그림 1>)는 도통군자를 향해 수도해 가는 과정을 그림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여기서 ‘혈식천추 도덕군자(血食千秋道德君子)’는 오랜 세월 만인으로 부터 추앙을 받고 제사

를 받으며 일심(一心)을 가지고 도덕을 쌓은 군자라는 뜻이다. 이처럼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진실한 마음을 간직한 채 도덕을 쌓아온 사람이 도통군자라 할 수 있다. 우당은 수도 과정에 관하여 “모든 일에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과정에는 반드시 장애가 있으니 이것을 겁액(劫厄)이라 한다. 겁액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데 성공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¹³⁾라고 하였다. 이 말은 수도의 길에서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수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도통진경(道通眞境)은 종단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도를 통하여 진경(眞境)에 이른다는 의미이다. 도통진경은 도인 개인의 이상인 동시에 우주 전체가 완성되는 참다운 후천선경인 것이다. 이는 대순진리회가 추구하는 본질적 세계를 뜻한다. 도통진경의 세계를 나타내는 여러 표현이 있다. 증산은 후천, 낙원, 선경, 좋은 세상, 좋은 시대, 인존시대, 후천선경, 지상선경이라 하였고, 정산은 도통진경, 지상천국, 청화오만년용화선경(淸華五萬年龍華仙境), 무량극락오만년청화지세(無量極樂五萬年淸華之世)라고 하였으며, 우당은 도화낙원(道化樂園), 무궁한 선경, 지상낙원, 상생의 세계라고 하였다. 도통진경은 정

13) 『대순지침』, p.93.



<그림 2> 도통진경



<그림 3> 도지통명

음정양(正陰正陽)으로 평등, 조화, 화합, 협동으로 재겁(災劫)이 사라지고 전쟁과 병겁(病劫)이 없는 영원한 지상의 화평이 있는 세계이다. 이러한 도통진경의 의미는 심우도(尋牛圖)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종단의 심우도는 도인이 입도(入道)하고 수도를 거쳐 득도(得道)와 성도(成道)에 이르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¹⁴⁾ 첫 번째 벽화(<그림 2>)는 ‘도통진경(道通眞境)’이다. 이는 도(道)를 상징하는 소[牛]와 하나가 된 단계로 ‘내가 곧 도이고, 도가 곧 나[道即我我即道]’인 경지라 할 수 있다. 동자가 소를 탔다는 것은 도와 일체를 이룬 것이다. 두 번째 벽화(<그림 3>)는 ‘도지통명(道之通明)’이다. 이는 천(天)·지(地)·인(人) 삼계가 모두 도에 통하여 인간은 지상신선이 되고, 천지는 지상천국으로 변한 것을 의미한다. 소와 일체가 된 동자는 이제 신선이 되었다. 소가 있던 공간은 선녀들이 음악을 들려주고, 학들이 노니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계로 바뀌었다. 증산이 펼친 도(道)로 인해 후천의 지상신선 실현과 지상천국 건설은 가능하게 되었고, 그 사실이 심우도에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도통진경의 모습은 『전경』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도통진경의 주요 내용을 『전경』 구절 순서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 심우도의 순서는 ① 심심유오(深深有悟) ② 봉득신교(奉得神敎) ③ 면이수지(勉而修之) ④ 성지우성(誠之又誠) ⑤ 도통진경(道通眞境) ⑥ 도지통명(道之通明)이다.

〈표 1〉 도통진경의 주요 내용

「전경」	도통진경이 실현된 후천진경
행록 1장 36절	선천에서는 백골을 묻어 장례를 치르지만[埋白骨而葬之] 후천에서는 백골을 묻어 장례 치르는 것을 얹게 하심 [不埋白骨而葬之].
공사 1장 31절	불을 때지 않고서도 밥을 지을 수 있고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도인의 집집마다 등대 한 개씩 세워져 온 동리가 햇빛과 같이 밝아짐. 문고리나 옷걸이도 황금으로 만들어지고 금당혜를 신게 됨.
공사 2장 17절	후천에서는 젊은 과부는 젊은 홀아비를, 늙은 과부는 늙은 홀아비를 각각 가려서 친족과 친구들을 청하고 공식으로 예를 갖추어 개가게 됨.
공사 3장 8절	사람을 해치는 물건이 없어짐.
교법 1장 63절	선천에는 눈이 어두워서 돈이 불의한 사람을 따랐으나 후천에서는 그 눈이 밝게 되어 선한 사람을 따르게 됨.
교법 1장 68절	그 닭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어 남존여비의 관습이 없어짐.
교법 2장 11절	약한 자가 도움을 얻으며 병든 자가 일어나며 천한 자가 높아지며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으며, 강하고 부하고 귀하고 지혜로운 자는 다 스스로 깎이게 됨.
교법 2장 55절	선천 영웅시대의 죄로써 먹고 사는 것을 없애시고, 후천 성인시대는 선으로써 먹고 살게 하심. 후천 증생으로 하여금 선으로써 먹고 살 도수를 짜 놓으심.
교법 2장 58절	두 계급이 있고 식욕이 고르게 됨.
교법 3장 23절	민족들의 제각기 문화의 정수가 겹쳐져 후천의 문명이 이룩됨.
교법 3장 31절	중찰인의(中察人義)가 나오게 됨.
교법 3장 41절	종자를 한 번 심으면 해마다 뿌리에서 새 싹이 돌아 추수하게 되고 땅도 가꾸지 않아도 옥토가 됨.
예시 12절	증산이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리고 각 민족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의 정수(精髓)를 뽑아 통일하고 물샬틈없이 도수를 짜 놓음.
예시 13절	후천에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하므로 모든 도법을 합(合)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바로잡지 못하게 됨.
예시 75절	운거(雲車)를 타고 바람을 제어하여 만 리 길을 경각에 왕래하게 됨.
예시 76절	술수가 거두어짐.
예시 77절	후천에는 백오 염주가 됨.
예시 80절	사람마다 불로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쾌함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짐.
예시 81절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게 됨.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율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어지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됨.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三災)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게 됨.

이렇듯 도통진경은 종단의 목적으로 후천선경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전경』에 따르면 증산은 선천에 나타난 문화의 정수를 뽑아 후천 문명의 기초를 설정하고 있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리고 각 민족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의 정수(精髓)를 뽑아 통일하고 물샷 틈 없이 도수(度數)를 짜 놓았다. 이는 선천의 긍정적인 부분은 수용하여 후천 문명의 기초로 정하고, 더 이상의 상극적 결과가 초래하지 않게 하겠다는 증산의 의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후천은 지혜가 밝아져 과거·현재·미래와 시방(十方)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三災)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된다. 이는 증산이 행한 천지공사를 통해 선천세계가 개벽 되고 지상천국이 건설된다는 의미이다.

Ⅲ. 윤리적 수도와 신앙적 수도

1. 윤리적 수도의 길

사회 일반의 보편성에 기반을 둔 윤리적 수도 방법은 삶 속에서 인간의 도리(道理)를 다하는 것이다. 우당은 “수도를 잘하고 잘못함은 자의(自意)에 있으나, 운수를 받는 것은 사가 없고 공에 지극한(無私至公) 인도(人道)에 있다는 것은 알아야 한다.”¹⁵⁾라고 하였다. 인도

(人道)란 인류에게 공통된 보편적인 이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말하며 인류과도 같은 말이다. 이러한 윤리 도덕의 실천은 대순진리회 도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강조되는 것이다. 윤리적 수도 방법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도통과 연결되어 언급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정산이 무극도(無極道)를 창도하면서 선포한 ‘목적(目的)’에는 도통진경을 이루기 위한 증산의 유지(遺志)가 온전히 담겨 있다. 특히 목적 가운데 ‘무자기(無自欺)’는 인간 본래의 청정(淸淨)한 양심(良心)에 관한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 수도의 목적인 도통을 이루는 근본이라 할 수 있다. 무자기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거짓된 언행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도인이 공명정대한 양심을 간직하고 도리에 맞는 언행을 하는 것이다. 우당은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있는 말로 일을 꾸미면 천하가 부수려 해도 못 부술 것이요, 없는 말로 일을 꾸미면 부서질 때는 여지가 없나니라.’ 하셨으니 무자기(無自欺)를 뜻하심이다.”¹⁶⁾라고 하였다. 따라서 무자기는 천성 그대로의 양심을 되찾아 자신을 속이지 않고 사심(私心)에 사로잡혀 상대방에게 도리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우당의 훈시에 따르면 무자기를 근본으로 인간 본래의 맑고 깨끗한 본질로 되돌아가서 무욕청정(無慾淸淨)이 되었을 때 도통에 이르게 된다.¹⁷⁾ 『대순지침』에 “마음이 참되지 못하면 뜻이 참답지 못하고, 뜻이 참되지 못하면 행동이 참답지 못하고, 행동이 참되지 못하면 도통진경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心不誠 意不誠 意不誠 身不誠 身不誠 道不誠).”¹⁸⁾라고 하였다. 인간은 마음에서 뜻이 생기고, 뜻에 따라 행동

15) 『대순지침』, p.93.

16) 같은 책, p.24.

17) 같은 책, p.39 참조.

18) 같은 책, p.76.

이 이루어지는데 마음이 참되어야 참된 행동을 하게 된다. 특히 도통도 마음을 바로 해야만 실현될 수 있다. 도인이 무자기를 실천하지 못하여 자신과 상대에게 거짓을 행하게 되면 척이 되어 자신의 앞길을 막게 되고 결국 도통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도통은 증산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했을 때 받게 되는 것이다.¹⁹⁾

또한 우당은 도통진경에 이르는 수도 방법으로 세 가지 윤리 도덕의 실천사항을 강조하고 생활화해야 한다고 하였다.²⁰⁾ 첫째, 술선수범이다. 도인들이 증산의 덕화를 펼치는 데 있어 항상 모범을 보여 사회인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²¹⁾ 우당은 “서로가 먼저 술선수범하여 좋은 일을 해 나간다면 그 자체가 바로 도통진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지탄을 받는 것도 말로만 수도자라고 하면서 실제 행동에는 술선수범하지 않는 데 그 원인이 있으며, 이 사회의 병폐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²²⁾라고 하였다. 둘째, 가정화목이다. 증산은 박공우가 아내와 다투자 천지신명이 운수자리를 찾아서 각 사람과 가정을 드나들면서 기국을 시험한다고 하며 성질이 너그럽지 못하여 가정에 화기(和氣)를 잃으면 신명이 큰일을 맡기지 않는다고 하였다.²³⁾ 우당은 “앞으로 가정화목이 이루어져야, 때가 오면 운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²⁴⁾라고 하며 도인이 가정에서 융화단결을

19) 같은 책, p.38 참조.

20) 「도전님 훈시」, 『대순회보』 6호 참조, “금년에는 도인으로서 필히 지켜나가야 할 세 가지 실천사항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째 술선수범이고, 둘째 가정화목이며, 셋째 이웃과의 화합입니다. 이와 같은 3대 실천 사항을 전 도인들은 명심하고 실천하여 생활화합니다. 생활화한다 함은 곧 몸과 마음이 일치되어 저절로 행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생의 법리이며, 우리 종단의 종지인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근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 이의 실천으로서만이 여러분이 소원하는 바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21) 『대순지침』, p.29 참조.

22) 「도전님 훈시」, 『대순회보』 6호.

23) 『전경』, 교법 1장 42절 참조.

24) 「도전님 훈시」, 『대순회보』 6호.

기본으로 자신의 위치에 따른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셋째, 이웃화합이다. 도인들은 사회 속에서 대순진리를 실천하며 봉사함으로써 이웃과 화합을 이루는 것이 강조된다. 자신이 먼저 남에게 봉사함으로써 맺었던 척이 풀리고 이웃의 따뜻한 정이 있게 된다. 이웃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진실성 있게 대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길러야 하며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에서 벗어나 자신의 편안함보다 먼저 이웃을 생각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적 수도 방법은 삼강오륜(三綱五倫)을 지키는 일에도 나타난다. 삼강오륜은 유학의 도덕론에서 기본이 되는 세 가지의 강령(綱領)과 다섯 가지의 인륜(人倫)을 말한다.²⁵⁾ 이는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사회의 윤리로 존중됐고 지금도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윤리 규범이다.

그런데 대순사상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삼강오륜을 해원상생(解冤相生)과 보은상생(報恩相生)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다. 삼강을 예로 들면, 전통적인 군위신강(君爲臣綱)의 충(忠) 개념은 군신 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신하가 군주를 섬기는 것은 국가를 위하는 행위와 같았다. 하지만 대순사상에서는 충의 대상을 국가의 장으로만 보지 않고 더 넓은 의미인 국가라는 공동체로 설명한다. 그리고 전통적 의미에서 효의 대상은 부모에게 한정되지만, 대순사상에서는 효(孝)의 적용 범위가 부모·조상 선령신으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열(烈)의 의미가 순종과 정절이라고 한다면, 대순사상에서는 부부 관계에서 평등하게 남자 여자가 각자의 예를 지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부부 관계에서 척이 발생하지 않는 해원상생의 원리에 따라 부부 윤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포덕교화기본원리』에서는 ‘충·효·예’라는 소재목으로 ‘충·효·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25) 삼강은 군위신강(君爲臣綱)·부위자강(父爲子綱)·부위부강(夫爲婦綱)을 말하며, 오륜은 오상(五常)이라고도 하는데, 부자유친(父子有親)·군신유의(君臣有義)·부부유별(夫婦有別)·장유유서(長幼有序)·붕유유신(朋友有信)을 말한다.

대순사상에서는 부부 관계에 상생의 이념이 들어가기에 전통적 의미의 열의 자리에 예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수칙(守則) 2번에서 삼강오륜을 일상생활의 윤리 규범으로 강조하고 있다. 삼강오륜은 음(陰)과 양(陽)이 덕(德)을 합하고, 만사가 이치에 따라 생성 변화하는 데 필요한 차제 도덕의 근원으로 볼 수 있다. 삼강오륜을 실천한다는 것은 양에 해당하는 국가(君)·부모(父)·남편(夫)·연장자(長)와 음에 해당하는 국민(臣)·자녀(子)·아내(婦)·연하자(幼)가 자신의 위치에서 직분에 맞는 도리를 다함으로써 세상의 합덕(合德)과 조화(造化)를 실현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²⁶⁾

우당은 “사람으로서 꼭 행해야 할 도리는 삼강과 오륜입니다. 상제께서 ‘세무충 세무효 세무열 시고 천하개병(世無忠 世無孝 世無烈 是故 天下皆病).’이라고 하셨듯이 세상에 삼강오륜이 없어짐으로 인해 천하가 다 병들었다고 하셨고, 이 병을 고치시려고 상제께서 오셨으며, 이 병을 고침으로써 도통도 있고 우리의 대운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²⁷⁾라고 하였다. 충·효·열이 윤리 규범으로서의 본질을 상실하고 그 참된 정신을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졌기 때문에 증산은 천하가 모두 병들었다고 진단한 것이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삼강의 덕목인 충·효·열을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강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온전하게 실천하게 되면 도통이 있다고 여긴다. 『포덕교화기본원리』에서는 “충·효·예도가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의 진리이니 이것으로서 수도(修道) 수행(修行)의 훈전(訓典)을 삼고 힘써 닦고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²⁸⁾라고 강조하고 있다.

26) 대순사상에서의 삼강오륜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이재호, 「상생의 길: 상생의 이념으로 바라본 삼강오륜(II)」, 『대순회보』 183 (2016) 참조.

27) 「도전님 훈시」, 『대순회보』 12호.

28) 『포덕교화기본원리』, p.12.

2. 신앙적 수도의 길

대순진리회 고유의 특수성을 담고 있는 신앙적 수도 방법은 진법(眞法)을 수호하며 수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단의 진법은 증산의 대순하신 진리에 감오득도(感悟得道)하고 종통계승의 계시를 받은 정산이 종단 무극도를 창도하고 1957년 11월에 도인의 각종 수도 방법과 의식행사 및 준칙 등을 설법 시행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정산의 유명(遺命)에 의한 종통계승을 받은 우당이 대순진리회를 창설한 후에 수도 방법을 계승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²⁹⁾ 종단의 입도 절차를 거친 도인은 진법에 맞는 수도를 행하게 된다. 도통을 받을 수 있는 도문(道門)에 들어와야지만 도통진경을 알게 되고 이를 위해 수도하게 되는 것이다. 신앙적 수도 방법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도통과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도통의 근원은 연원(淵源)이다. 연원은 도의 근원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가리키는 종교적 표현이며, 연원도통이란 증산, 정산, 우당으로 이어지는 연원 체계가 도통의 근원이라는 뜻이다. 이는 『도헌』 제13조에 “연원은 강증산 상제의 대순하신 유의(遺意)의 종통(宗統)을 계승한 조정산 도주의 연원이라 한다.”라는 내용과 우당 훈시에 “두분의 진리를 받아야 통한다. 이것이 연원도통이다. 연원도통이란 상제·도주 두분의 진리에 도통이 있음을 말한다. 포덕한 연줄로 운수를 받는 것이 아니다. 연원과 연운은 다르다. 오늘 갓 입도한 도인이라도 연원은 누구에게나 같은 것이다.”³⁰⁾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순진리회의 연원이란 도인에게 바꿀 수도 고칠 수도 없는 여합부절(如合符節)한 천부적 종통 계승으로 교화되고, 도의 생명이며 진리로 강조된다.³¹⁾

29) 『대순진리회요람』, pp.12-13 참조.

30) 「도전님 훈시」(1989. 3. 18).

31) 「도전님 훈시」, 『대순회보』 5호.

아울러 『도헌』 제17조에 “도전은 조정산 도주의 유명으로 종통을 계승하여 본회를 대표하고 영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연원’이 ‘종통’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종통은 일반 사람이 주고받는 상속의 개념이 아니라 신성성(神聖性)과 연속성(連續性)의 특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증산은 대순진리회의 ‘신앙의 대상’이고, 정산은 도의 ‘창도주(創道主)’이며, 우당은 진법을 운용하여 종단을 창설하고 이어나가는 ‘영도자(領導者)’인 것이다. 우당은 “종통이란 도의 생명이며 진리인 것입니다. 종통이 바르지 못하면, 법(法)이 있을 수 없고 경위(經緯)가 바로 설 수 없으며, 그러므로 그 속에서는 생명이 움틀 수 없으며 만물만상을 이루어 낼 수 없는 것입니다.”³²⁾라고 하였다. 이 훈시는 법이 없고 경위가 바로 서 있지 않은 곳에서는 진리가 없어서 수도해도 도통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중요한 것은 종통계승은 우당까지만 이어지며 더 이상의 종통계승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인은 증산-정산-우당으로 이어지는 종통을 믿고 진법을 지켜나가게 된다. 이러한 종통에서 도통에 이르는 수도 방법도 나오게 된다.

또한 대순진리회에서는 수도 방법으로 기본사업인 포덕·교화·수도와 3대 중요사업인 구호자선사업·사회복지사업·교육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事業)은 정산이 수도공부의 법제로 갖추어놓은 것을 정산으로부터 종통을 계승한 우당이 도통에 이를 수 있는 실천수행의 법방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사업은 종단의 목적을 현대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해 법방으로 만든 것인데, 이 중 기본사업은 신앙적 수도 방법과 밀접하다.

포덕(布德)은 증산이 후천선경으로 갈 수 있도록 천지공사를 행하였다는 것과 정산이 마련한 진법에 맞추어 수도함으로써 도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다. 우당은 공명정대하게

32) 교무부·대순종교문화연구소, 「특별기획: 대순진리회의 종통(宗統)」, 『대순회보』 201호 (2017) 참조.

대순진리를 알리어 증산을 밋고 참뜻을 가진 사람에게 입도(入道)를 권해야 한다고 하며 “포덕하여 도인을 만든다는 것은 도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인을 완성하는 일입니다.”³³⁾라고 하였다. 교화(教化)는 상대방에게 증산의 대순한 진리를 잘 깨우쳐 도통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교화자는 대순진리에 입각한 언행과 처사로 모든 일을 편벽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교화자가 대순진리를 생활화하면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감화(感化)를 입게 하여 교화가 되는 것이다. 종단의 수도(修道)는 넓은 의미에서 도를 닦는 일체의 수행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수도는 공부(工夫)와 수련(修鍊)과 평일기도(平日祈禱)와 주일기도(主日祈禱)로 구분한다. 이 중 공부는 증산의 뜻을 받들어 정산이 ‘50년 공부종필’로 마련한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진법으로 천명된다. 현재까지도 여주본부도장에서는 시학·시법 공부가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신앙적 수도 방법은 의례(儀禮)에도 나타난다. 의례란 의식(儀式)과 예절(禮節)의 준말로, 특정 의식이나 행사를 하는 예법 절차이다. 대순진리회 의례는 신앙의 대상인 증산을 중심으로 천지신명에게 행하는 종교의례이다. 즉 영대(靈臺)와 봉강전(奉降殿) 등에 봉안된 상제와 천지 대신명들에 대한 의식인데, 이는 도인이 도통에 이르는 법방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순진리회에서는 제 신위(神位)에 대한 봉심, 주문 봉송의 기도, 공부, 수련, 치성, 월성 등의 의례를 도법(道法)이라고 한다.³⁴⁾ 의례가 이루어지는 가장 신성한 장소는 영대인데, 영대는 상제를 비롯한 15신위와 천지신명을 모신 곳으로 도장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자 최고의 성역이다. 도인은 영대에서 구천상제와 옥황상제, 서가여래를 비롯한 천지신명과 조상 선령신에게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예를 갖추게 된다. 특히 여주본부도장의 영대는 종단의 모든 치성 의식과 제반 행사 및 공부가 병행되는 성전이다.

33) 「도전님 훈시」, 『대순회보』 35호.

34) 교무부·대순종교문화연구소, 앞의 글 참고.

IV. 두 가지 길의 대순진리회적 의미

윤리적 수도 방법은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길이다. 이는 무자기, 상생의 법리인 술선수범·가정화목·이웃화합, 삼강오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리적인 수도 방법은 인간의 소중한 인륜을 지키는 것으로 사회 속에서 대순진리를 펼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도법이 된다. 그리고 신앙적 수도 방법은 종단의 진법을 수호하며 실천하는 길이다. 신앙적 수도 방법은 증산이 대순한 유지(遺志)와 정산이 정립한 유법(遺法), 우당이 가르친 유훈(遺訓)으로 전해지는 진법을 뜻한다. 도통진경을 향한 수도의 길은 연원을 바탕으로 한 수도, 기본사업인 포덕·교화·수도, 진법에 의한 종교적 의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종교의 본질적인 면으로 신앙적 측면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대순진리회의 수도 방법은 도통진경이라는 이상적 인간과 세계의 구현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윤리적 수도와 신앙적 수도의 길을 동시에 강조한다. 이 두 수도 방법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대체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도통진경이라는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는 두 개의 유용한 통로로 함께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윤리적 수도만을 중요시해서 신앙적 수도를 소홀히 한다거나 반대로 신앙적 수도만을 중요시해서 윤리적 수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증산이 삼계를 대순한 이유는 천도와 인사의 상도(常道)가 어그러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도란 동아시아 전통에서 때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 윤리적 도리를 말한다. 그러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란 신명계를 포함한 하늘과 인간사에도 시간과 공간이라는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추구해야 할 도리가 있다는 것이다. 우당은 “선경(仙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

라, 천(天)·지(地)·인(人)·신(神)이 각기 자신의 도리를 다할 때, 그것이 바로 선경이 되는 것이며, 화평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도인은 도리를 다하며, 무자기(無自欺)를 바탕으로 수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³⁵⁾라고 하며 인륜을 바탕으로 둔 수도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실천을 했을 때 도통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형성되는 것이다. 수도를 통해 이르게 되는 후천시대는 신명이 모사(謀事)하고 그 성사(成事)는 인간에게 달려 있다. 이러한 이유는 인간에게는 천지의 중앙인 마음이 있고, 천·지·인의 중심에서 적중한 윤리 도덕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산은 후천에서 선(善)으로 먹고 살 도수를 짜놓았다고 하였고,³⁶⁾ 우당은 “도는 우주 만상의 시원이며 생성변화의 법칙이고, 덕은 곧 인성(人性)의 신맥이며, 신맥은 정신의 원동력이므로 이 원동력은 윤리도덕만이 새로운 맥이 될 것이다.”³⁷⁾라고 하였다. 이처럼 후천에서는 윤리도덕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인 것이다.

증산은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 주면 되려니와 도통될 때에는 유 불 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³⁸⁾라고 하였다. 이 대두목 공사는 도통줄을 받아 진법을 완성한 정산과 이 진법을 실현한 우당으로 이어지는 도의 연원을 확정된 공사이다.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냈다고 한 것은 증산의 공사를 계승하여 도통진경에 이를 수 있는 진법과 대도를 세우는 종통계승자가 있다는 것이고 도통줄을 받은 대두목에게 도통줄, 즉 진법을 전수받아 심신을 닦으면 도통될 때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도인은 이 진법을 통한 신앙적 수도를 통해 도통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

35) 「도전님 훈시」, 『대순회보』 5호.

36) 『전경』, 교법 2장 55절 참고.

37) 『대순지침』, p.44.

38) 『전경』, 교운 1장 41절.

그렇다면 종단에서 도통진경에 이르는 길로 윤리적 수도와 신앙적 수도를 병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논자는 윤리적 수도와 신앙적 수도가 병행되는 이유가 일상의 삶 속에서 ‘대순진리를 생활화’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고립되어 신앙적 수도만을 행하지 않고 사회 속에서 대순진리를 구현하라는 증산, 정산, 우당의 뜻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와 떨어진 고립된 수도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구현되는 대순진리를 언명한 것이다.

대순진리의 생활화는 도인이 도장과 회관, 포덕소 및 자택에서 행해지는 시간과 공간이 한정된 곳에서만 수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윤리 도덕을 지키는 수도를 병행한다는 뜻이다. 이는 우당이 『대순지침』 첫 장 ‘훈시의 대지(大志)’에서도 “나의 말을 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하여 생활화되도록 하라.”³⁹⁾라고 하며, 여러 훈시에서 강조한 ‘대순진리’, ‘상제의 언명’, ‘상생의 법리’, ‘기본사업’ 등의 중요 교리를 ‘생활화’하라는 측면과 상통한다. 대순진리를 생활화하라는 것은 심우도의 ‘도통진경’처럼 소와 동자가 하나 되는 것과 같이 일상의 모든 순간이 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신앙적 수도 방법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윤리적 수도 방법이 병행되어 실천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종단의 수도 방법은 더욱 견고한 수행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내용은 우당의 훈시에서도 확인된다.

우리 도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일거일동(一舉一動)을 조심하고 매사에 술선수범으로써 사회에 모범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상제님께서 베풀어주신 법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공명정대(公明正大)하고 떳떳하게 도인이든 사회인이든 구분하지 말고 가르쳐 나가야 합니다. 상제님의 덕화는 세세 미미한 곳까지 두루 미치고 있습니다. 도인들이 행동 처사를 잘못함으로써 덕화를 손상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39) 『대순지침』, p.3.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룩하려면 우리의 도가 사회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⁴⁰⁾

우리가 먼저 척을 풀고 상대방에게 술선수범하여 봉사함으로써 상호 간의 모든 일이 해원상생과 보은상생과 진리를 따라 이해와 화합 속에서 해결되게 되어 상제님의 대순진리가 사회 각계각층에 전해집니다. ... 모든 도인은 위의 내용을 명심하여 어느 곳에서든 남을 위해 나를 아끼지 않는 자세로 성경신을 다해 대순 진리를 생활화하고 전 세계에 선양하여 운수와 도통을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도인이 되어야 합니다.⁴¹⁾

우당의 훈시에 따르면 수도의 목적인 도통진경을 이루기 위해선 중단이 사회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일거일동을 조심하고 매사에 술선수범으로써 사회에 모범이 되는 일’, ‘어느 곳에서든 남을 위해 나를 아끼지 않는 자세로 성(誠)·경(敬)·신(信)을 다해 대순 진리를 생활화하는 일’은 사회 속에서 대순진리를 펼쳐나가라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언명 속에서 도통진경을 향한 두 가지 길은 상호보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당이 강조한 것은 수도만을 하면서 ‘기다리는 도통진경의 세계’가 아니라 진법과 윤리 도덕을 실천하면서 ‘만들어가는 도통진경의 세계’인 것이다.

아울러 증산은 도통군자에 대해 상통(上通)은 도를 창성하고, 중통(中通)은 크게 어질고, 하통(下通)은 크게 깨닫는 자라고 한 언명을 관점을 달리 해석하면, 도인이 도를 창성하면 상통을 받고, 크게 어질면 중통을 받으며, 크게 깨닫는 자는 하통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도를 창성하게 하는 도인은 윤리적 수도와 신앙적 수도를 생활화하여 증산이 베푼 도법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를 사회 속에서 몸소 실천하는 사람일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특징은 실천도덕에 있다. 기본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40) 「도전님 훈시」, 『대순회보』 16호.

41) 「도전님 훈시」, 『대순회보』 29호.

포덕도 사회 속에서 펼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윤리 도덕을 준행하는 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는 종단의 진법과 인간의 도리가 함께 중요시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대순진리의 생활화’는 도인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도와 하나가 되는 경지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종단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종단이 사회와 함께 호흡하여 도가 세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대순진리의 생활화는 윤리적 수도 방법과 신앙적 수도 방법의 두 가지 길을 도통진경으로 향하는 ‘하나의 길’로 통합하게 한다. 이 하나의 길은 대순진리회가 종교 내부로 고립되지 않고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종교와 사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이상향을 제시한다.

V. 맺음말

도통진경에 이르는 길은 도인의 윤리적 수도와 신앙적 수도 방법으로 실현되고, 이 두 가지 길은 도통진경을 향한 유용한 통로로 병존하며 서로를 보완하게 해준다. 종단은 도통진경에 이르는 방법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사회로부터 벗어나 신앙적 수도만을 하는 것을 지향하지 않는다. 세상에 대한 집착과 욕망을 버리고 종단 안에서만의 수도를 하는 것이 그릇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면서 개인의 도통만을 추구하거나 신앙적 수도 방법만이 곧 도통진경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문제다. 그래서 우당은 사회 속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며 종단의 수도를 함께 하라고 강조하였다.

윤리적 수도와 신앙적 수도의 길이 병존하는 이유는 일상의 삶 속에서 대순진리를 생활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두 가지 길

은 대순진리가 몸과 마음에 배어 사회 속에서 대순진리의 생활화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도통을 받기 위해 수도한다고 할 때 연원을 바탕으로 기본사업 등을 통해 수양하더라도, 이를 일상에서 체화하려면 윤리 도덕을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소와 동자가 하나가 되어 도통진경에 이르는 심우도의 그림과 같이 모든 순간 도의 진리와 합일되는 것이다. 결국 도통진경에 이르기 위해서는 대순진리의 생활화가 강조된다. 도인이 대순진리를 생활화했을 때 도인 개인적으로는 대순진리를 깨달아 도즉아(道卽我) 아즉도(我卽道)의 경지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되며, 종단 전체적으로는 도가 사회 속에서 발전해 나가는 길이 된다. 개인의 도통만을 위해 신앙적 수도만을 한다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의 유용성이 없다고 본다. 가정이 있으면 가족 구성원으로서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대순진리를 선양할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앙적 수도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연운포덕(緣運布德)도 알고 있는 사람을 포덕하라는 뜻으로 이는 사회 속에서 인망을 얻어야 가능한 일이고 자신이 사회 속에서 모범이 되었을 때 실현된다.

이상과 같이 본 글에서는 도통진경을 향한 두 가지 길에 대해 논의 해보았다. 이 두 가지 수도 방법은 서로 유기적 관계 속에서 수행체계의 근본을 이루고 있다. “화목하고 밝은 도인 가정의 모습이 이웃에 비칠 때 그 이웃은 자연스럽게 도를 알게 되고 입도하게 될 것입니다.”⁴²⁾라는 우당의 훈시를 보면, 윤리적 수도가 잘 될 때 사회로 도가 알려지고 자연히 신앙적 수도인 포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도인은 수도하면서 자신이 사는 현대사회와 호흡을 하며 함께 살고 있다. 도통진경의 세계란 윤리적 수도와 신앙적 수도를 실천하는 다양한 모습 속에서 비로소 성취되는 것이다. 도통진경에 이르는 길은 증산, 정산, 우당이 알려주었지만, 인간이 수도를 거친 후에 받

42) 「도전님 훈시」, 『대순회보』 45호.

는 것임을 도인은 종단의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증산의 덕화는 온 누리에 미치고 있기에 도인은 일상의 삶 속에서 이 두 가지 길을 함께 지켜 대순진리를 생활화해야 한다. 이 길은 종단이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와의 소통을 통하여 이상적 인간과 세계의 구현이라는 목적에 이르게 한다.

【참고문헌】

- 『전경』 13판,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 『대순지침』 2판,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2.
- 『대순진리회요람』, 여주: 대순진리회 교무부, 2010.
- 『포덕교화기본원리』, 여주: 대순진리회 교무부, 2003.
- 『도헌』, 서울: 대순진리회, 1985.
- 「도전님 훈시」, 『대순회보』
교무부·대순종교문화연구소, 「특별기획: 대순진리회의 종통(宗統)」, 『대순회보』 200-202호, 2017-2018.
- 나권수, 「대순진리회의 이상사회론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 장병길, 『대순종교사상』, 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9.
- 이경원, 『대순종학원론』, 서울: 문사철, 2013.
- _____, 『대순진리회 교리론』, 서울: 문사철, 2013.
- 윤기봉, 「대순사상의 도통관에 있어서 실천수행의 문제」, 『종교교육학연구』 39, 2012.
- 이재호, 「상생의 길: 상생의 이념으로 바라본 삼강오륜」, 『대순회보』 182-183호, 2016.

■ Abstract

**Two Ways to Reach the Perfected State of
Unification with the Dao: Ethical Cultivation and
Spiritual Cultivation of Daesoon Jinrihoe**

Choi Jeong-rak

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Edificatory Services, Daesoon Jinrihoe

Perfected state of unification with the Dao (道通眞境), one of the tenets in Daesoon Jinrihoe, signifies the earthly paradise in the Later World, which is Dao cohorts' ideals and realizes the Dao of mutual beneficence at the same time. Perfected state of unification with the Dao refers to the ultimate paradise which Daesoon Jinrihoe aims for. Each devotee understands that this term presents the true stage, 'sages enlightened to the Dao,' through the Dao. The purpose of the Daesoon Jinrihoe order is expressed as the perfected state of unification with the Dao which embraces auspiciousness and fortune. Sangje Kang Jeungsan practiced saving humankind and divine beings from annihilation so that he led them to the paradise of the Later World with everlasting prosperity and blessings by performing the Reordering Works. In addition to that, Jeungsan had them reach the unification with the Dao through cultivation.

This study aims to focus on the fact that the way to reach the perfected state of unification with the Dao is realized through

ethical cultivation and spiritual cultivation. Those two ways co-exist as a useful path towards the perfected state of unification with the Dao and complement one another. They depict the true dharma of Daesoon Jinrihoe, which embraces the human duty based on social convention and its intrinsic characteristics. The method of ethical cultivation is a way on which human beings live in harmony and practice their duties. The method of spiritual cultivation is a way to protect and practice the true dharma which has been passed through the intention of Sangje Kang Jeungsan's Great Itineration, the principle of Jo Jeongsan, and the teachings left by Park Wudang.

This research apprehends that the reason for the two ways to reach the perfected state of unification with the Dao to co-exist takes root in the practice of Daesoon Jinri (Daesoon truth) through everyday life. The practice of Daesoon Jinri can be understood from the perspective of devotees, who realize Daesoon Jinri as 'I am the Dao and the Dao is none other than I, myself (道即我我即道).' However, the order of Daesoon Jinrihoe keeps in tune with society so that its true dharma spreads throughout the worl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rder in general. In the end, the practice of Daesoon Jinri integrates those two ways of ethical cultivation and spiritual cultivation into 'one way.' This one way maintains the intrinsic characteristic of the order and simultaneously helps accomplish the purpose which realizes the ideal world and humankind by communicating with society.

Keywords: perfected unification with the Dao, unification with the Dao, ethical cultivation, spiritual cultivation, true dharma, reason, practice